

K-뷰티기업, 해외 거점 확대... '체험·B2B·데이터' 차별화

**올리브영 美 매장 K-쇼핑 결합
디엘스킨 9월 'K뷰티 하우스' 출범
화해 데이터 기반 파트너십 확대**

K뷰티기업들이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핵심 상권에 직접 오프라인 거점을 세우고 있다. 판매 매장을 꾸미고 체험형 행사를 진행하는 데 이어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 확장, 데이터 기반 브랜드 검증 등을 실행하는 전략 가치를 마련해 중소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고 있다.

2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미국 매장에 'K쇼핑' 경험을 결합하며 글로벌 소비자를 적극 공략한다.

올리브영은 오는 8월 14일(현지 시간) 미국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KCON LA 2026'과 연계해 '올리브영 페스타 LA 2026' 막을 올린다.

이 행사는 약 1422평 규모의 초대형 뷰티 축제에 올리브영은 서울 명동, 강남, 성수 등 K뷰티 대표 상권을 그대로 구현할 예정이다. 총 55개 브랜드를 내놓으며 한글 표지판, 버스 정류장 등 서울의 풍경을 연출한다. 방한 외국인 중심의 'K쇼



오는 8월 미국에서 초대형 K뷰티 축제 '올리브영 페스타 LA 2026'가 열릴 예정이다. /CJ올리브영



디엘스킨은 지난달 24~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K뷰티 하우스'의 사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디엘스킨

핑'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던 미국 현지에서 마치 서울에 온 듯한 몰입감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입점 브랜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가 직접 제품과 정체성을 알리는 강연 프로그램 '뷰티&헬스 토크 다이브'를 기획하고 있다. 브랜드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퓨처커넥트 라운지'도 설치한다.

올리브영은 올해부터 미국에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본격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미국 매장 1호점 패서디나점, 2호점

센추리시티점 등을 구축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K뷰티와 K쇼핑을 다양하게 확산해 국내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기업과 정부가 협업해 K뷰티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창구도 문을 연다.

오는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마켓 센터(CMC)에 K뷰티 플래그십 허브 'K뷰티 하우스'가 공식 출범한다. K뷰티 하우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디엘스킨이 운영하는 가운

데,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 사업자 연계, 미디어 및 인플루언서 초청 등이 이뤄진다. B2B 사업자를 주요 고객층으로 설정해 글로벌 유통사들이 K뷰티 제품을 가까이서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디엘스킨 측은 "패션 위크, 메이크업 쇼 등이 열리는 글로벌 패션뷰티 플랫폼 CMC에 K뷰티가 진입한 것은 최초 사례"라며 "미국 내 K뷰티의 달라진 위상을 방증하며 우수한 국내 뷰티 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계속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K뷰티 데이터를 집약한 중소 브랜드 상생 생태계가 조성됐다.

뷰티 플랫폼 화해를 운영하는 화해글로벌은 지난 5월 중국 상하이 흥취안루 코리아타운에 첫 오프라인 단독 매장 '화해'를 선보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화해가 축적한 44만 개 제품 데이터와 1020만 개의 소비자 후기를 기반으로 중국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만 정교하게 선별해 소개한다.

이후 이 매장은 하루 평균 2000명의 방문객수, 300개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현지 인플루언서들 중심의 온라인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어 화제성까지 입증했다.

화해는 상하이 매장에서 확보한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현지 유통사를 대상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뷰티 업계 관계자는 "K뷰티 오프라인 거점 다변화는 일방향적 수출 공식이 깨지고 현지 맞춤형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SK바사, 게이트재단 'ROTOR 프로젝트' 주관

**AI 기반 백신개발 최적화 플랫폼 구축
미래 감염병 대응·국제사회 보건 기여**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게이트재단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임상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개발 과제인 'ROTOR 프로젝트'에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게이트재단은 자체 펀딩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하며 해당 과제에는 국제 보건 기구(PATH)와 글로벌 IT 기술 컨설팅 기업 슬라립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ROTOR 프로젝트는 백신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면역원성 및 과학적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연구개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개발 전략을 최적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다양한 백신 및 질환 분야에 폭넓게 활용 가능한 범용 플랫폼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PATH는 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검증함으로써 백신 개발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저소득 국가 백신 개발사들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백신 접근성 확대에 중점을 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러한 첨단 플랫폼이 미래 감염병 대응과 국제사회 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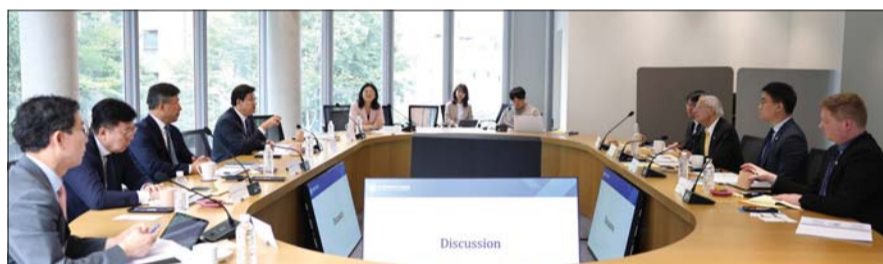
실제로 그동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국제백신연구소(IVI), 범미보건기구(PAHO), 글로벌백신면역연합(Ga

vi),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글로벌 공공보건 기관들과 협력하며 보건 인프라를 확장해 왔다.

최근에는 CDC와 주사형 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초에는 게이트재단 산하 연구 기관인 '게이트 MRI'와 신규 호흡기세포 융합바이러스 항체 의약품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지난 2월에는 유럽연합 산하 기관으로부터 팬데믹 패치형 독감 백신 개발 과제를 수주하기도 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백신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게이트재단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백신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캐나다 온타리오주-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업 협력회의'가 진행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협회, 韓-캐나다 산업협력 모색

온타리오주 빅터 피델리 장관 논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글로벌 제약바이오 무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캐나다 온타리오주-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업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빅터 피델리 경제개발부 장관이 참석해 캐나다와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캐나다 온타리오의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협력체(Acceleration Consortium, AC)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기술을 공유하

는 등 상호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빅터 피델리 장관은 협회 산하 AI신약연구원, 자율 실험실 등을 방문해 국내 인공지능 신약개발 연구환경과 혁신 역량을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캐나다 측은 자율 실험실 운영 현황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 유사 인프라 구축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한국은 우수한 연구 기반과 미래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고 캐나다 온타리오는 북미를 대표하는 인공지능과 생명과학의 혁신 거점"이라며 "양측의 강점을 잇는다면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애경산업 AGE20'S 퍼펙트 캡처 세팅 픽서

애경산업은 스킨 퍼스트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가 '시그니처 퍼펙트 캡처 세팅 픽서'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 제품은 메이크업을 처음처럼 유지하는 데 쓰인다. 메이크업 고정을 위한 피부 유분 관리, 수분 공급 등의 기능을 갖췄다. 5가지 펌프 타입,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 A 등의 성분이 불필요한 피지 분비를 개선해 깔끔한 피부 표현에 도움을 준다. 저·중·고분자로 구성된 3종 히알루론산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수분막을 형성한다.

이와 함께 피부에 분사하는 즉시 피부 온도를 평균 4.1도(°C) 낮추는 냉각 효과까지 구현해 여름철 열감으로 인한 메이크업 무너짐을 줄일 수 있다. /이청하 기자

대웅제약, 중동·아프리카 '엔블로' 수출

8개국 1452억 규모 계약

대웅제약이 엔블로 수출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며 국산 블록버스터 약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대웅제약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아시노 파마 에이지와 중동·아프리카 지역 주요 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엔블로' 수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마일스톤을 포함해 한화 약 1452억원으로 '엔블로' 글로벌 수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대웅제약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아라크, 이집트 등 8개 국가를 공략한다.

/이청하 기자

엔블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대웅제약이 개발한 국내 최초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 억제제 계열 국산 신약이다.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하고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출해 혈당을 낮춘다. 혈당 강하는 물론 신장 질환, 심부전 등에서도 치료적 지점을 갖췄다. 기존 SGLT-2 억제제의 30분의 1을 밀도는 0.3mg의 저용량으로 뛰어난 약효를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엔블로 수출 계약은 국산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신약이 처음 중동·아프리카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엔블로가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국제약, '유레스코정' 글로벌 판매 본격화

파에스 파르마와 라이선스·공급 계약

동국제약이 '유레스코정'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동국제약은 지난 1일 스페인 글로벌 제약사 파에스 파르마와 '유레스코정' 라이선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계약금과 함께 최대 200만 유로(약 35억원)의 개발 및 판매 마일스톤이 포함됐다.

동국제약은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등 중남미 지역 13개 국가

에 향후 10년간 총 390억원 규모의 '유레스코정'을 공급한다. 파에스 파르마 해당 국가에서 제품 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허가 완료 후 발매할 예정이다.

유레스코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개량 신약으로, 타다라필 5mg과 두타스테리드 0.5mg을 하나의 정제에 처방한 세계 최초 복합제다. 전립선 크기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증상을 개선하는 이중 효과를 갖췄다.

/이청하 기자